

완도, '해양치유 관광' 선포식

30일 생활문화센터서 진행 홍보대사 위촉·세리머니 등 관광 인지도 제고·경쟁력 강화

완도군이 오는 30일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에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는 해양치유 완도 관광'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선포식에는 국내 여행사 및 유관 기관 관계자와 인플루언서 및 유튜브 등 전국의 MZ 체험단,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가, 음식업·숙박업 종사자, 완도군관광발전협의회 회원 및 군

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해양치유산업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의 본격적인 운영과 대규모 행사·축제 개최에 앞서 관광 비전을 선포함으로써 관광 인지도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선포식을 마련했다. 선포식은 국악 앙상블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신우철 완도군수의 '완도 관광' PT, 국내 여행사 및 유관 기관과의 해양치유 완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이 진행된다. 이어 인플루언서, 유튜브, 파워블로거, 관광 사진작가 등 관광 홍보 마케팅을 위한 관광 명예 홍보대사 위촉, 완도군관광발전협의회

지역 관광 활성화 다짐과 참석자 전원이 함께 하는 비전 선포 및 세리머니 등을 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이벤트를 벗어나 국내 여행사와 유관 기관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해양치유와 전북 따기 등 완도의 관광자원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모집을 위한 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의 기회로 삼는다. 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 시대에 맞춰 대한민국을 건강한 삶을 선도하는 해양치유 완도 관광 정책을 펼쳐 관광객 천만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완도=최규욱 기자



강진군육아지원센터가 최근 '오감발달 놀이교실'을 개강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육아지원센터 '오감발달 놀이교실' 개강

강진군육아지원센터(센터장 이수민)는 그동안 아침차게 준비해온 '오감발달 놀이교실'을 최근 개강했다고 22일 밝혔다. 오감발달 놀이교실은 강진군 부모와 자녀들이 문화센터 강좌 이수를 위해 더 이상 타도시를 방문하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체험미술·체육활동 등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비 1억 1,000만 원을 확보해 추진 중인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의 일환이다. 주로 보육시설이 없는 6개면(대구, 마량, 신전, 작천, 병영, 읍전)의 아동을 위해 면사무소 및 면 문화센터 등에서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오감발달 놀이교실에는 6개 면의 아동들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강진읍과 4개면(군동, 칠량, 도암, 성전) 아동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강진군은 여성친화도시와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강진군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3월, 강진군육아지원센터를 사단법인 위스타트에 신규 위탁했다. 강진군육아지원센터 이수민 센터장은 "올해 3월 1일부터 위스타트가 다문화아동 사례관리 업무를 마무리하고 강진군육아지원센터의 이름으로 영유아 양육환경 조성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자녀를 키우는 각 가정에서 만족할만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강진=한태선 기자

'민·관 소통 창구' 나주 시민권익위 모집

불편·고충사항 해결 모색 내달 5일까지 신청서 접수

나주시가 민선 8기 시민 중심의 참여 행정 구현을 위해 새로운 민·관 소통 창구를 만든다. 나주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에 참여할 외부위원을 21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불편·고충 사항 등에 대한 토론, 심의·의결을 거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민·관 협력 기구로 설치된다. 위원회는 '주민숙원사업 및 다수인 민원',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고충 민원', '갈등관리 대상 사업' 등에 대한 검토·조정, 의견수렴, 시정 권고, 공론화 주관 기능을 갖는다. 산하 2개 분과(행정복지, 경제환경)를 구성할 계획으로 시민 제안·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은 물론 정책화를 통해 실질적인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외부 위원은 행정, 사회복지, 농업, 도시, 환경, 건설, 건축 등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 관련 업무 종사자를 비롯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위원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류를 작성, 시청사 감사실(본관 3층)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이메일(jiwfa98@korea.kr) 또는 우편(나주시 시청길 22 감사실), 팩스(061-339-2806)로도 가능하다.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시는 시장 분야별 전문성과 지역, 성별 등을 안배해 4월 중순경 외부 위원을 최종 선정,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은 토론과 공감을 통해 사회 갈등, 민원 해결의 주제로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 중심 열린 시정과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충권 기자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해남, 수확기 대금 일부 선지급

8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

해남군은 수확기 대금 일부를 월급처럼 선지급 받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벼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 등에 농협 자금을 활용해 대금을 선지급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내 8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며, 군에서는 선지급에 따른 대금 이자를 보전해 준다. 농협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은 약정수매 대금의 일부를 3월에서 10월까지 최대 8개월간 농협으로부터 매월 선 지급받는다. 최소 20만원부터 최고 250만원 한도에서 월급 형태로 지역농협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품목별 신청기간 중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

와 농협 출하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해남군에서 153명 농가가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와 안정적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 만큼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전남농협·농가주부모임, 영농폐기물 수거 '구슬땀'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가 최근 영광군 일원에서 (사)농가주부모임전남도연합회(회장 정혜숙)와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영농후 환경에'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농협 임직원들을 비롯한 (사)농가주부모임 희망드림봉사단 등 40여명이 참가했다. (사)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19개 시군, 89개 분회)는 농협에서 육성하는 여성농업인 단체로,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희망드림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영광군 군남면 일대의 영농현장을 방문해 방치된 폐비닐 및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불갈면 일대의 저수지 수변공원 정화 운동을 실시했다. 또한, 전남의 환경오염과 산불방지 홍보활동에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 /우성진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칠량면 새마을부녀회, 반찬 나눔 봉사

강진군 칠량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유영애)가 최근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부녀회원들은 정성을 담아 만든 반찬을 지역 내 홀몸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33세대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며 대상자들의 건강과 안부도 확인했다. 반찬을 전달받은 한 독거 어르신은 "이렇게 정성 가득한 반찬을 먹으니

입맛이 살아나 힘이 난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유영애 부녀회장은 "정성껏 준비한 반찬이 우리 이웃분들에게 행복한 끼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몸과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이웃을 위한 나눔 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담양, 지역인재 장학금 기탁 잇따라

담양군은 ㈜에스제이이엔지와 법씨마을학교에서 각 1,000만원과 100만원을, 임계서원에서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역인재를 위해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성면에 있는 ㈜에스제이이엔지(대표 조승준)은 건축, 환경설비 등을 전문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업체이다. 창평면에 있는 법씨마을학교(대표 김승애)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농사 교육으로 진정한 지역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무정면에 있는 임계서원(총장 김곤)은 옛 선조들이 서당으로 쓰던 역사 깊은 서원이다. /담양=정일남 기자



이미정 사이다 강사, 나주시에 고향기부금

나주시는 사이다 강사로 활동 중인 이미정 씨가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정 씨는 "나주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제 2의 고향으로 생각할 만큼 평소 큰 애정을 갖고 있다"며 "나주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이 씨는 남편업에 자신의 두 번째 집을 마련하는 등 나주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며 "앞으로도 긍정 에너지로 웃음과 희망을 전하는 사이다 강사로 승승장구하시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나주=조충권 기자